



애나 박 변호사가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북한에 관심을 갖고 기도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해방과 분단의 70년 남북통일과 북한 복음화 기도

### Adopt a Day 815 한인 2세대들 중심으로 확산

한인 2세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15일 첫 기도회를 연 이래 Adopt a Day 815 운동은 2015년 8월 15일 즉,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향해 기도 모임을 이어 오고 있다. 미국 시민인 2세대들이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영적 구원을 위해 순수 기도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1일 이들은 중현선교교회에서 "북한 알기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남북 분단의 역사를 나누고 짧은 간증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먼저 "잊혀진 전쟁의 기억 (Memory of a Forgotten War)"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고 6명의 스피커들이 나섰다.

건강보호법 전문가인 애나 박 변호사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에도 저는 큰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스피커들은 북한 구원과

기도, 복음 전파의 중요성 등에 관해 입을 모아 강조했다. JAMA의 설립자 김춘근 교수는 "복음이 전파되면 그 나라는 완전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한국"이라고 했다. 또 김 교수는 크리스천들이 남한과 북한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북한은 육적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남한은 세속주의와 소비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헌신서약을 작성하고 Adopt a Day 815 운동에 동참하며 한 달에 두 번씩 플러튼에서 기도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미 한인 1세대들 중심으로는 약 10년 전부터 통곡기도회가 LA에서 시작되어 지금 한국을 비롯해 유럽 등 전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운동이 북한 동포의 해방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 인권 기도운동이라면 815 운동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회복을 부르짖는 기독교 민족주의 기도운동이라 볼 수 있다. 문의) adoptaday815@gmail.com, www.adoptaday.com

김준형 기자

## 남가주한인목사회 삼일절과 이민역사 기념 음악회 개최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올해 삼일절 행사를 기념예배와 이민 112주년 기념 음악회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2월 3일 열린 정기월례회에서 백지영 회장은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일으킨 삼일운동을 기리고 이민 112년 동안 한인들의 위상이 미국 주류사회 내에서 크게 성장된 것을 감사하는 행사"라고 전했다.

삼일절 기념예배는 전통적으로 매년 목사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가 설교자로 초청됐다. 음악회는 송규식 목사를 음악감독으로 해 세계 정상급 한인 음악인들과 남가주 지역 주요 합창단들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3월 1일 주일 오후 6시 30분 원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며 목사회는 성도들의 참여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또 2월 중 목사회는 목회자들의 친목을 다지고 영적, 육적 휴식을 위한 그랜드캐년 관광도 마련한다. 백회장은 "이민 목회로 고생해 온 목회자들이 위로 받고 다시 한 번 힘을 얻어 성도들을 섬기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백 회장은 "주인이 준 한 마나



남가주목사회가 월례회에서 2015년 상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 그레이스 유 지지 호소 "기도의 기적 믿는다"



그레이스 유 후보

로 열 마나를 남긴 종처럼 칭찬받는 목사회가 되자"고 격려하며 상반기 동안 목사회가 추진할 사업들에 회원들의 협력을 구했다.

한편, 이번 월례회에는 로스앤젤레스 제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참석해 한인 교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유 후보는 "1992년 4.29 폭동 후 한인 커뮤니티 재건 문제부터 최근 선거구 재조정 문제 등 여러 면에서 한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

며 우리의 목소리는 시와 주로부터 외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가 출마하게 됐다"면서 "10지구의 한인 7,50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으로서 약 10여 년 재임하며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 온 그는 "이 싸움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면서 "저는 기도의 기적을 믿는다. 목회자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다양한 인종의 교류와 평등, 권익 신장, 소수민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안전 확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준형 기자

## IS에 희생된 고토 겐지 씨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최근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참수된 일본인 고토 겐지 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의 한 기독교 신문에 칼럼을 게재해 왔으며 지난해 5월 시리아 출국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내가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현장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생활하며 동행하고 싶다.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 모습을 세계로 보낼

때 어떤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의 이런 언론관은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센다이시 출신인 고토 겐지 씨는 1996년 영상통신회사인 인디펜던트 프레스를 설립했고, 최근에는 주로 시리아에서 취재를 해 왔다. 그는 일본 최대 개신교회인 일본 그리스도 연합교회(UCCJ)에 출석해 왔으며 일본의 영자 신문인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이 교회 타무라 히로시 목사는 "그는 강력한 신념을 지

닌 헌신적인 언론인"이라면서 "그는 정의감이 강했다. 그리고 늘 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참수 사건과 관련, 흉악한 살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동맹국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슬람국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격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단일 안기용 목사

# 기독일보

## 창립 11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00pm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초기 한국교회는 왜 급성장했을까?(III)

초기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다섯째 요인은 한국 교인들의 전도열이다. 세계 4대 종교, 즉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가운데 전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다. 이 두 종교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전도한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울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전도인들과 선교인들의 목숨을 건 전도로 교회 영역을 확장한 기록이다. 초기 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지와 원시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대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초기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 역시 죽음을 전제로 한 선교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다. 한국에 나와 선교하다 생명을 잃은 선교사, 부인, 자녀들의 숫자는 헤아리기 어렵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이런 분을 본 한국 기독교인들의 전도열은 두드러졌다. 한국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 혼자만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었다.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에겐 신앙을 갖도록 권고했다. 초기 교회가 세례 후보자들에게 세례 조건으로 내세운 몇 가지 가운데, '1인 이상 전도' 항목을 둔 것도 전도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교회 회원 즉 세례교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 아더 브라운(A. Brown)도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말하려 하는 것은 교회 회원이 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세계적 선교 잡지 <세계선교조명>(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서도 한국에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한 사람이야 한다고 기록했다.

1909년에 일어났던 '100만 명 구령운동'(Million Souls for Christ) 때 '날연보'(日捐補: day offering) 운동이 일어났다. 날연보란 날, 즉 시간을 연보(헌금)한 것이다. 헌금으로 드린 시간에 전도하는 운동은 한국교회 성장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이 운동 기간 동안 전국으로 수십만 날이 헌금되었다. 이 헌금된 시간에 전도가 이루어졌다. 초기 교회는 새로 입교하려는 교인들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학습문답을 했다. 그 문답 내용 중 다섯째가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교리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자기 가족을 설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케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족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네비어스 정책 중 자전(自傳)운동과 맞물려 더욱 가속을 받았다. 한국 교인들의 전도열이 아니었다면 한국교회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 없었다.

의주의 청년들이 만주에서 로스와 매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했다. 그 번역된 쪽 복음서를 비밀리에 다량 휴대하고 귀향했다. 귀향 후 그들은 권서(勸書) 혹은 매서(賣書)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런 한국 교인들의 전도열로 한국교회가 신속히 성장했다는 것은 분분가지의 사실이다.

여섯째,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익히기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순 한글 성경이 일찍 확보되었다. 또한 초기부터 성경공부, 즉 사경회를 열심히 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백낙준 박사는 한국의 개신교가 일찍이 성경번역에 애쓴 일을 한국 천주교회와 대비하여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 이승훈이 교회를 창설한 이래 1866년까지 82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동안 쪽복음서 한 권이나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번역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주교회가 개신교회보다 100년이나 일찍 한국에 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교세는 개신교의 삼분지 일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 보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된 후 국내로 유입되어 반포되었다. 일반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언더우드와 1887년 평북 의주에 갔을 때 100여 명이 몰려와 세례 받기를 청원했다. 그는 그들을 한 사람씩 문답하고 그 중 33인을 합격시켰다. 언더우드는 그들을 목선에 태우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당시 조선은 외국 종교를 엄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한국 초기 교회의 '요단강 세례'라 일컫는다. '성경의 교회,' '성경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보고서에 보면 감리교회의 한 교인은 신약전서가 번역된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하루 일당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성경을 샀다고 기록했다.

이와 연결해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한국에 문자와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나 중국과 같은 나라는 종족들 간의 언어가 서로 달라 한 가지 문자나 언어로는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 보급이나 전도가 극히 어려웠다. 선교사들이 현지에 들어가 현지어를 배우고 익히는 데,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 현지어를 익혀 성경을 번역, 출판해서 보급하기 시작한 후, 성경을 갖고 산 하나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럼 다시 그들 언어를 습득하는 데 또 장구한 세월을 요했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는 데에 또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더러는 말은 있으나, 문자가 없는 종족도 많았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그들의 언어에 따라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 후, 그 문자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선교사들이 감탄할 정도로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문자이다. 이렇게 쉬운 문자를 창제한 세종대왕을 주신 것은 한국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보아도 좋다.

또 한국은 한글과 한국말이면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조선 8도에 안 통하는 곳이 없어 한국의 복음화가 신속했다. 이 점에 대해 선교사 스위러(W. B. Swearer)도 '한 민족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이 나라 복음화의 좋은 조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언어를 통일, 문자의 통일은 한국 복음화의 절경 중 중요한 요인이었다.

<계속>



남가주의 음악인들이 아름다운 창작성가를 연주하고 있다.

### 제14회 창작성가의 밤 열려

남가주의 작곡가들과 시인들, 음악인들이 제14회 창작성가의 밤을 열고 아름다운 성가를 선보였다.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에 속한 시인들이 지은 시에 남가주교회음악협회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이고 이 성가들을 코랄레옴, 노바코랄, LA레이디즈싱어즈, 캠프코랄 등 4개 합창단이 불렀다.

눈을 뜨고 있어도, 제자의 길, 예뻐서 꿈꾸며, 누가 주님의 빛 되어, 왕이 오신다 등 총 13곡이 연주됐

으며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남가주교회 음악협회 서명호 회장은 "창작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영광 돌린다"고 전했고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정정숙 회장은 "새롭게 탄생한 곡들이 오래도록 전도의 찬양으로 불리길 소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2월 1일 주일 저녁 7시 다우니에 위치한 미주영광교회에서 열렸다.

문소현 기자



얼바인 아름다운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 얼바인 아름다운교회 새성전 입당과 창립 기념 부흥회

얼바인 아름다운교회가 새성전 입당과 창립을 기념하는 부흥회를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했다. 강사는 박응순, 양병희, 최낙중 목사였다.

첫째날은 인천주안중앙교회 박응순 목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둘째날은 서울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와 "심령이 변해야 산다"란 제목으로 새벽과 저녁 두 차례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날은 서울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나눔"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전했다.

얼바인 아름다운교회는 1999년 풀러튼에서 남가주부흥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고 이동준 목사가 초대 담임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시무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미주노회에 속한 이 교회는 지난해 11월 8일 얼바인으로 이전했으며 12월 1일 이름을 아름다운교회로 바꾸고 재창립했다.

주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전화) 949-250-1111 문소현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Good News**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We are fully accredited by ATS and a member of GTU

##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 수시 모집

### Doctor of Ministry Program

■ 세미나 일정 1차: 2015년 2월 17일(화)-21일(토) (6 Units)  
2차: 2015년 6월 22일(월)-26일(금) (6 Units)

■ 세미나 장소 **The First Baptist Church**  
(Los Angeles Extension Campus)  
760 S. Westmoreland Ave. L. A. CA 90006

**LA Cohort Staff**  
Dr. Hyo Shick Pai, Administrator  
(661) 755-5442  
drhyopai@gmail.com  
Dr. Joseph Jung, Students Relation  
(213) 200-2592  
josephsr0101@hanmail.net  
Rev. Young Lee, Admissions  
(714) 319-2234  
herrdream@hanmail.net  
Dr. Jong K. Suk, Students in Korea  
(714)318-9528  
sjkpastor@hotmail.com

1. 세미나는 1년에 2번 진행합니다.  
2.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한 학기에 한 주간만 함께 수업하며, 나머지는 Online강의를 제공합니다.  
3. 100% Online 강의 과목도 있으며, 학점을 많이 이수할 경우 조기졸업도 가능합니다.

**Dr. Paul Martin: President**  
Main Campus: 2606 Dwight Way, Berkeley, CA 94704  
Los Angeles Cohort: 760 S. Westmoreland Ave. L.A. 90005  
Approved by Dr. Sam Park, Director

**www. absw.edu**  
(Established 1871)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 앞줄 좌측에서 다섯번째가 박진구 목사.

### “눈 뜨면 지고, 눈 감으면 이긴다”

#### 전주안디옥교회 박진구 목사 세미나

일명 강통교회로 불리는 전주안디옥교회에 2대 담임으로 시무하는 박진구 목사가 풀러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회할 것을 주문했다. 풀러신학교 한인총동문회 주최, M.Div.동문회 주관으로 2월 2일 새장로교회에서 열린 세미나는 약 3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와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란 주제로 열렸다. 박 목사는 싱가포르 선교사 출신으로 풀러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

고 필리핀에 있는 바울선교훈련원장으로 재임하다 이동휘 목사 뒤를 이어 안디옥교회 담임으로 2005년 부임했다. 그는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형들이 그를 인신매매하고 종이 되고 범죄자로 오인돼 감옥에 갇히는 긴 시간이 있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

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곧 능력이다.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교육전도사로 있을 당시 섬겼던 한신교회의故 이종표 목사의 삶을 예로 들며,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나 믿음이 곧 능력”이라고 했다. 자신도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명인 이동휘 목사의 후임이 된 후 겪었던 갖가지 어려움들과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 “오직 기도”로 이겨나갔다고 전했다. “결국 이 문제들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 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인다. 목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이긴다”고 조언했다. 그는 세미나를 마치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민 목회는 곧 선교다. 목회자들 가운데 지치고 좌절하고 실패한 분들이 많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자”며 기도를 인도했다. 김준형 기자



예배 후 기념촬영. 맨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담임 강양규 목사.

### 남가주 새언약교회

#### 설립 4주년 기념예배 및 이전 감사예배

남가주 새언약교회는 지난 2월 1일 교회 설립 4주년 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 교회당은 LA 한인타운 내의 6가와 카탈리나에 위치해 있다. 예배는 담임 강양규 목사의 사회로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선교교회)가 기도하고, 오병익 목사(건강한교회)가 설교했다. 오병익 목사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남가주 새언약교회가 복음만을 선포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이 불타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는 성령충만한 교회, 교제와 나눔이 늘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어 손민호 목사가 헌금 기도한 후, 최아브라함 목사(UCS신학대학교 총장)와 박용덕 목사(남가주 빛내리교회)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하고 최한오 목사(나성성지교회)가 축도

했다. 남가주 새언약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슬로건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지난 201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담임 강양규 목사는 성결대학교를 졸업하고 침신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아주사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UCS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다. 교회의 주일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각각 성경공부와 성령집회가 있다. 새벽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30분이다. 주소) 3407 W. 6th St. #601 Los Angeles, CA 90020 문의) www.new2011.org 전화) 213-434-1083 김나래 기자

### 24시간 복음 방송의 꿈 꾸고 실천했던故 임수홍 권사

임종희 목사와 함께 미주복음방송을 설립해 헌신했던 아내故 임수홍 권사의 추모예배가 지난 28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에서 열렸다. 1991년 2월 11일 임 목사 부부는 남가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필요하다는 비전 아래 미주복음방송을 시작했고 무려 20년간 이 사역에 헌신했다. 이들이 사역하는 동안 미주복음방송은 자체 건물을 구입하고 AM1190채널을 인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임 권사는 지난 19일 자신이 거주하던 버지니아 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장례는 22일 미주복음방송국장(葬)으로 거행됐다. 그리고 특별히 임 권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미주복음방송이 있는 LA 지역에서도 추모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 예배는 미주복음방송 사장 송정명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민중기 목사(중현선교교회)가 기도하고, 임 직원들이 조가를 불렀다. 아들 임성현 씨가 고인의 삶을 회고한 후, 이



남편 임종희 목사가 추모예배에 함께 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장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가 조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故 임 권사는 전파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꾸 사람, 그 꿈을 기도로 실천한 사람”이라고 회고하며 “직업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품고 질책하던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던 분”이라 전했다. 설교는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 대표)가 맡았다. 박 목사는 자신이 나성영락교회에서 목회하던 당시의 임 권사를 “미주복음방송의 설립자요, 우리 교회의 헌신적인 권사요, 아내요, 어머니”라고 전하면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죽음은 하

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라 위로했다. 이어 모든 예배를 마치며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가 축도했다. 이 예배에는 OC교협회장 김기동 목사(중만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등 목회자들을 비롯해 고인과 함께 미디어 선교에 힘썼던 기독교 언론인들, 미주복음방송의 직원과 자원봉사자, 유족 등 100여 명이 이상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이 예배에서 모인 조의금 전액을 미주복음방송에 선교비로 헌금하기로 했다. 김준형 기자

### 한국 장신대 김명용 총장 특별 강연회

#### 온신학 - 21세기 통전적 신학을 향하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2월 4일 오전 11시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명용 박사를 초청해 “온신학(Holistic Theology)-21세기 통전적 신학을 향하여”란 주제 아래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 박사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학대학원과 대학

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독일 정부 아데나워 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신학 박사(Dr.theol.)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장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조직신학회장, 칼바르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 전광훈 목사 초청 애국 포럼

2월 8일 오후 5시 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회장 김봉건 장로) 주최로 애국 포럼이 제이제이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한

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전 목사는 예장 대신측 총회장이며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이기도 하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T.323.737.8888 T.213.453.6624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3개 구입시 \$180  
4개 구입시 \$23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www.marhlaw.com**  
email. marhlaw@yahoo.com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모든 법적 문제의 만족한 결과는 정확한 상황 분별과 의뢰인의 필요를 이해하는데서 시작합니다.  
법적인 모든문제,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마동환변호사그룹**  
상법/이민법  
일반민사/상해/교통사고  
가정법/뱅크립시/소송전문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LA 본사**  
213.487.9190 fax. 213.487.9484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팍 / 플러튼 / 세리토스 지점  
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언 16:3)”

마동환변호사

Justice  
Justice

Wishire Blvd.  
Berendo Ave.  
Artesia Blvd.  
Marquadt Ave.  
Valley View Ave.



# 두 날개로 비상하는 의료교육 선교의 비전 공동체

##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예수사랑 실천의 섬김 단체로 거듭날 터



제8대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예수사랑 실천의 미주기독한의사협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 8대 회장 이기미(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이기미)가 2015년을 맞아 제 8대 새 임원진을 맞았다. 임기가 매 2년임을 감안하면 벌써 1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의술을 통한 지역 섬김을 묵묵히 실천해오고 있는 셈이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의 2015년도 표어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의료교육 선교 비전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때를 알아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한의사협회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고자 함이다.

이번에 제 8대 회장으로 섬기며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이 협회를 이끌어갈게 될 이기미 회장의 각오가 남다르다. 협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걸어온 믿음의 과거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회장은 한국대학생선교회(한국CCC) 출신이다. 한국 고신측 전국역전대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협회를 통해 지역 사회를 향한 하나님나라 확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알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맡겨진 임기 2년 동안 미주기독한의사협회가 지향할 방향을 세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협회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협회가 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사랑이 넘치는 협회의 전통을 잘 이어가며 더욱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협회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회장은 "첫째 회원 모두가 존재의 목적성을 바로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협회 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회원 각각의 삶이 주어진 위치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협회가 물질, 명예 등의 족쇄에 묶여서 힘겨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 의술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이웃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크게 보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 협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도구인 침(針) 구(灸) 약(藥)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기관으로 커 갈 것입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선교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입니다."라면서 지역사회의 건강하고도 모범적인 기독교단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한의사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협회는 매달 한 차례씩 출석성도 중 한의사가 없는 지역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 무료한방진료 행사를 갖기도 한다. 이는 무료 한방 진료를 통해 해당 교회를 돕고 그 교회 주변 지역의 복음화에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함이다.

또한 베트남 마리아 김 선교사를 위해 물질과 중보기도로 섬기는 등 해외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등을 통해 믿음의 다음세대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 협회는 매달 둘째주 주일 오후에는 외부 설교자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후에는 약 2시간 30분 가량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방 의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2월에는 강사 조행식 원장, 'Balance Acupuncture' 주제로 열린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가 이 지역의 건강하고 올곧은 선교단체로 자리매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함은 현재 40여명이 넘는 이 협회 회원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일 것이다. 제 8대 임원 및 협회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제 8대 임원: 회장-이기미/부회장-양병식(선교) 조행식(학술) 이은숙(기획) 조순선(대외홍보) / 총무-르네 안, 김장근 / 서기-신선옥, 샤론 김 / 회계-랜리 윤/감사-이옥선 이사

▲ 이사회: 고문 이사장-엄한광/이사장 강태완/부이사장-박동우/총무-이옥선/이사-김성일, 오덕상, 김정희

▲ 2월 예배: 시간 : 오후 5시 20분/장소: HIS Church(1520 James M. Wood Blvd., LA, CA90015)

▲ 회원 가입 및 기타 문의: 회장 이기미 (213.235.7169) 총무 르네 안(213.263.1638)

▲ 웹사이트: www.comaaa.org

▲ 페이스북: ww.facebook.com/groups/comaaa

이영인 기자

# W M S WISDOM MISSION SCHOOL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 학생이 변화되는 학교



-본지는 학업을 포함해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학생들이 WISDOM MISSION SCHOOL(WMS, 지혜선교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명문대에 진학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증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WMS는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약 4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Harvard, Yale,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의과대학 등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온 Han Sam SAT 학원이 모태다. 이 학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견, 계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상에 진출시키는 데에 그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James Kim 군 UC Berkeley

로 공부가 재미있어졌다. 매주 채플과 매일 QT 하는 동안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감을 얻었다.

〈7번째 간증〉 힘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 OOO 학생

Cypress High School에서 많은 활동(학생회 클럽 운동)과 행사로 인해 산만하여 공부에 제대로 전념하지 못했다. 하지만 WMS로 와서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고 특별활동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원하던 UC Berkeley를 비롯하여 UCLA, NYU 외에도 여러 학교에 합격했다. 특히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Support, Love & Discipline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 감사한다.

〈다음 호에 계속〉

〈6번째 간증〉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감을 얻었다 - James Kim 군

Kennedy High School에서 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WMS의 정세영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지극한 관심과 격려

학교 문의) 5851 Newman St, Cypress, CA90630  
714-995-1900 / www.wisdommissionschool.com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굿네이버스는 기독교일보와 함께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들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제 한병과 약간의 식량이면 허무하게 끝나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최수종 드림



당신의 나눔만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문의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http://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기관으로써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32개국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 어리석은 부자의 유훈(遺訓)

마태복음 19:16-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데 미련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57-58에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집이 필요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육신이 원하는 세상조건의 장막이나 물질적 기대심리보다는 영적으로 하늘소망에 더 나은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적이사를 많이 베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에서 율법에 정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 확신이 없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16절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을 주시며 감동하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 편에서 주시어서 믿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 어떤 입장으로 들어갈지는 은혜로 구원 얻은 다음부터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힘쓰고 애쓰며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영적인 성과를 얼마나 올려드렸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의 입장이 영원히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도 선한 일을 행하여야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자기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욕도 보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자기는 그곳에 갈 자격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청년도 영생에 관심이 많고 확신도 있고 꼭 들어가야겠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죄를 짓지 않게는 될 수 있으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원죄를 전가받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지키기 그 이전까지 지은 죄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죄가 사라지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는 하늘나라 갈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실 때 믿어질 때까지 성령이 뜨겁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집중적

인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파송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순종해 살기만 하면 하늘나라는 반드시 그 성령이 데리고 들어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소망을 가꾸어 주기 위하여 자주 모여야 하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믿음을 비교,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육적으로 세상에 빠져버렸으면 그곳을 헤쳐 나와서 다시금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소망에 새 출발하는 일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하며, 주저앉으면 일으켜 가며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을 생명으로 바꾸어 말씀하시며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일러주시며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며 말합니다. 20절의 내용은 자신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진실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십니다.

유대인이며 율법주의자인 이 청년은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확실한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많은 재산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을 두고 우리 자신과 비교하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가기 위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리(財利)의 유혹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식(蠶食)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는 믿음은 없고 그저 믿는 척하면서, 신앙은 껍데기 뿐이고 실속은 육신이 세상 허욕을 위해 돈을 좃아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돈벌이하느라 바쁩니다.

내세소망의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회사를 경영하던 중 부도가 났습니다. 잡하면 구속되기 때문에 기도원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짜 이름을 사용하면서 지냈는데 아침, 저녁으로 집회시간이 되면 참석하라는 종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차림새를 하고는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는 한 교회에서 버스 두 대가 와서는 집회를 하면서 남전도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가만히 보니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은 들었지만 지금의 처지가 숨어 지내는 형편이라 선뜻 나서서 아는 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기도원을 떠날 무렵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얼굴이나 한 번 더 볼 생각으로 다가가 바라보다가 도리어 그 친구가 자신을 알아보고 뵈석 안으며 "너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참 반갑고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숨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숨어 지내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너의 형편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자 그는 "예수를 믿으면 부자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 그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엄청 부자가 될 수 있지"합니다. 그는 이 친구의 이 말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친구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진짜로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빛도 다 갠다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적 함께 주일학교에 다녔던 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

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친구 장로는 그 사람의 회사를 조사해 보고 돈을 빌려주면서 부도는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는 기도원을 내려와서 다시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서 친구 장로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전도회 모임이 있던 날, 전도를 나가기 전, 목사님께서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며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과는 전도의 성과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오늘 꼭 전도해 오실 거지요?"했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 묻습니다 "전도를 해 오시라니 왜 고개를 저으십니까?"했더니 "제가 전도를 하면 안되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전도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다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하십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속셈으로 꼭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인 친구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몇 십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며 도와 주었는데 어쩌면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터리인데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무지할 뿐 아니라 믿는 믿음의 목적이 속셈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목자도 걱정하지만, 성령님이 염려하시고 예수님이 실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물질기대로 인한 속셈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성과를 인한 속셈은 하나님의 복 받은 그릇이 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T V 한국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크리스천 투데이                |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경복 기독 신문                | 3면 설교                      |
|             |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T V 미국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                            |
| COX TV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
| 워싱턴DC.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CTS TV      |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             |                              |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                              |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             |                              |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기독일보        | 5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FM91.5(SCA) |                              |                         | LA 미주 기독교방송                |
| AM1650      |                              |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 LA 미주 기독교방송 |                              |                         |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간정보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vi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사 전공)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미주총신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se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류종길 박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자동차 도네이션

아리조나 인디오 선교사에게  
자동차가 절실 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도네이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Tel. 424 - 220 - 0360 (전 에스더 선교사)  
213 - 718 - 1512

###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모세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아무 장비도 없이 높은 암벽을 오르라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프리 솔로(Free Solo)에 익숙한 등반가라면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은 완강히 반대할 것이다.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와 싸울지도 모를 일이다.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한 미디안 목자에게 당시 세상의 최강의 나라 이집트에 가서 히브리 노예 200만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다. 대답은 당연히 거절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을 때, 40년 동안 목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에게 한 마지막 말은 자신은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사명을 거절한 것은 결코 모세의 겸손이 아니다. 히브리 노예를 이집트에서 빼내어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40세의 성인이 되었고, 애굽의 영향력 있는 공주 하셉슈트의 아들이었으며, 말과 행사에 능하고, 약

간의 인맥이 형성되어 있던 모세가 봉기를 일으키려고 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독립에 대한 비전이 없는 비겁한 히브리 백성을 아무리 생각하여도, 강력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군대를 생각만 해도, 또 이제는 나이 들어 언변도 패기도 판단력과 건강도 쇠퇴한 자신을 보아도, 독립이란 결코 마음에 품을 수도 없는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퇴, 혹은 반퇴의 생활을 사는 모세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신다. 이전에 중국에서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 체로 왕의 후보는 3번 거절한 후에 수락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모

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5번이나 이유를 들어 거절한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 3:11).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출 3:13).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출 4:1).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술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4:10).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출 4:13).

하나님의 설득 또한 집요하시다. 약속하시고, 자신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결국 자신을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다. 모세는 내가 가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그는 깨닫고 순종한다. 모세는 이후의 엘리야처럼 호렘에서 준비된다. 호렘은 만남의 산이다. 변화의 산이다. 갱신의 산이다. 우리에게 호렘이 있는가?

### 인생 맛보기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모든 사람은 인생을 멋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건강, 돈, 미모, 권력, 명예, 평강 등으로 생각한다. 이 행복을 손에 잡기 위한 이민자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이민자의 꿈을 꾸고 이민자의 노래를 부르며 금의환향하는 것이 인생의 멋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생의 멋은 인생의 맛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빵 맛을 아는 사람은 빵을 사고, 과일 맛을 아는 사람은 과일을 사고,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고기를 주로 산다.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산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맛을 알려고 많은 것을 시도해 본다. 인생을 누리며 채워 본다. 맛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허무하고 허전하다. 무엇인가 텅 빈 것 같은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하다. 많은 것을 손에 넣은 것 같으나 막상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공허한 마음뿐이다. 한 번 뿐인 인생을 돌이켜 보면 후회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해 보자.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살 것이다.

짜장면을 먹어본 사람만이 짜장면 맛을 알듯이 인생의 행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 인생의 맛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서라도 이 맛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참맛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 인생의 참맛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34:8)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벧전 2: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인생의 진정한 맛을 맛보기를 원하는가? 아무런 부담없이 기대어 안길 품이 있는가?

여기에 그 놀라운 정답이 있다. 어서 오라!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는 우리가 안길 넉넉한 품이다. 그 품안에 인생의 진정한 참맛이 있다.

예수를 믿으라. 인생의 참된 행복의 맛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2015년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가장 맛있고 멋있는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매일 기쁘게 사는 이유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바보같은 인생”이라는 글이 나를 상기시킨다. 내용만큼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불만 가운데 살다가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아픈상처를 당하고서야 보금자리인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마른 빵 한 조각도 실컷 못 먹을 때 배부름의 고마움을 안다는 내용, 어려움을 겪고서야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이 곧 바보란다. 반면에 지혜자는 늘 기쁘게 산다. 내가 기쁜 이유는 천하와도 바꿀수 없는 생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로부터 신년 카드와 더불어 감명 깊은 글을 받았다. 작년에 감기 끝에 폐렴이 왔고, 거기에 능막염까지 겹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90을 바라보는 나이, 작년에 미국에서 40,000여 명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통계를 들었을 때, 자신도 단단한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보니 마치 관에서 살아나온 느낌이었던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밝게 보여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를 보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 전에 못 느낀 삶의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

에서 솟아 오른다고 했다. 교회의 뜰을 밟거나 손 때 묻은 의자에 앉는 것도 모두가 눈물나는 감사뿐이다. 그 선배 목사의 새로운 세계관을 읽으며 나를 돌아 보았다. 어제 저녁에 벗어 놓은 신발을 오늘 아침에 다시 신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멀리 멀리 떠난 지인들이 어디 한 둘이랴?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면 황홀해 질 수밖에 없다.

또 있다.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하든 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가든, 자원 봉사를 하든,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별로 움직이지 않고도 몇 백년을 산다는 거북이 보다는 짧게 살아도 노래하고 춤추며 서로 사랑하며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달새

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성구가 있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있지만 멋지게 살 자격이 있다. 미스터 이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도 엄청났지만, 겪은 마음의 고생은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 미국에서 운전을 못한다는 것은 발을 꼬꾸 묶어놓는 것과 같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세상은 다 내 것처럼 생각되었었다.

삶이 기쁜 또 하나의 이유는 나는 사랑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할 대상자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도 사랑이 있는 곳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생명이 솟아난다. 모한 것은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진하고 성스럽다. 경험상 주는 사랑이 클수록 돌아오는 기쁨도 비례해서 커진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는 성구가 마음에 와 닿는지도 모른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다. 사명감을 갖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한다.



#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흠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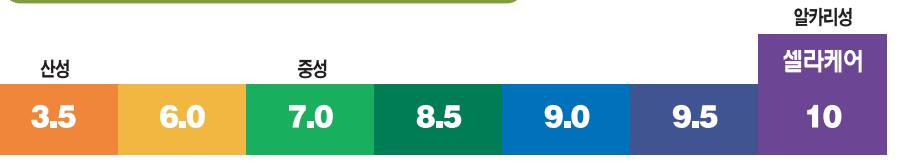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                       |  |
|-----------------------|--|
|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
| 대장암 말기                |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
| 원자력 피해                |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셋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일 빅토리아 8180-1339-2069   |
|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전식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용현(77세)  |
|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음을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
| 간질과 약물중독              |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증세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
| 직장암, 대장암 말기           |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이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
| 심한 아토피                |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
| 대장암                   |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
| 비만, 우울증, 야뇨증          | 여러차례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
| 심한 당뇨, 고혈압            |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전의 다리요 증상은 완치가 회복되었음.      오일환(52세, 가디나)   |
|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노배장 |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
| 심장병, 담석, 전립선          |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는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
|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
|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지(65세, 방배동)  |
|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흔지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설(63세, CA 토렌스)   |
| 자폐증                   |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길기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
| 혜장암 말기                |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후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
| 폐암 말기                 |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하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
| 자가 면역 질환              |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락(뉴저지)                              |
|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뜰뻔했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
| 혈액투석                  |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
| 중풍으로 인한 마비            |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죽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
| 임파선암                  |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
|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돌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경연(39세, 다이아몬드 바)                              |
| 전립선암과 부정맥             |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
| 파킨스 병                 |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
| 반신불수                  | 목사님 이었고 6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성(50세, 엘에이)   |

### 건강과 성경이야기 39

오늘 시간의 민간요법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수있는 방법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실것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피검사 결과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로 피를 검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여서 피 1g만 가지고도 간세포의 염증 정도를 판단하는 GOT나 GPT의 수치, 요산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 피 검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피에 이상이 없으면 건강한 것이고 정상수치와 어긋나 있으면 어떤 병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피가 나빠져 생긴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간경화 같은 병 있고, 나쁜 피라고 하는 어혈이 체내에 오래 머물러서 나타나는 파킨슨병, 류머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전신 홍반성 낭창과 입안과 신체의 일부가 자주 하는 베제트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만병을 예방한다는 수족온욕법은 주무시기 전에, 큰 그릇에 아주 더운물을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붓고 약30분 정도 담그는 것이 바로 수족온욕법입니다. 몸 전체를 담그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반드시 발목까지만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물에 천연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물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더운 물을 미리 준비해 두어서 온도를 유지하면, 말초 신경부터 서서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원리로서 상당히 신기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 검사를 한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어떻게 하면 깨끗한 혈액을 만들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보지 못했는데, 성경말씀을 잠시 보신후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여섯)장으로서 1장부터3장까지는 성상위임체와 교회의 비밀과 구원사역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여두음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 또 나로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옛날에 전쟁터에 나갈때 장군들이 입었던 갑옷과 칼과 방패를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정의로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복음전파하는 신발을 신고 모든 일을 믿는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인 칼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라는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만약 전도를 하지않아서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았다면 전신갑주가 아닌 부분 갑주일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기만 한다면 전쟁터에서 방패만 있고 칼이 없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사에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피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혈소판의 주역활은 지혈작용이고, 백혈구는 병균들을 잡아먹는 면역활동을 하며, 적혈구는 체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은 3일또는 7일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여야 하는데, 영양이 부족하여 반복운동을 하지 못할때 혈액은 어떻게 변하게 되면서 각종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좋은 흠에서 나온 식물성 미네랄을 드시면 혈액에 영양이 공급되면서 무슨병에 걸렸든지 3일정도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낫지도 않는 의약품에 습관처럼 메달리지 마시고 한번쯤은 기적의 영양제를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문의는 213-435-9600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                |              |                     |              |                      |              |                |              |
|----------------|--------------|---------------------|--------------|----------------------|--------------|----------------|--------------|
| 본사(LA)         | 213.435.9600 | 뉴서울호텔 (필달)          | 213.386.5310 |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 714.690.0120 | 토렌스 한남체민(건강마을) | 310.619.7758 |
| 시온약국           | 213.382.6485 | LA별론 마틴약국           | 213.382.9718 |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 714.670.7979 | 뉴욕, 뉴저지        | 201.983.8333 |
| LA 아드모아약국      | 213.385.2135 |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 213.388.4100 | 에나하임                 | 714.469.5809 | 시애틀            | 206.331.6655 |
| LA 한국마켓약국      | 323.464.3925 | 가주건강종합백화점           | 213.388.0091 |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 909.595.4003 | 시애틀 (건강마을)     | 206.229.5466 |
| LA 베스트약국       | 213.385.9926 |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 213.380.5103 | 얼바인                  | 949.330.9009 | 센루이스, 캔사스      | 314.570.9629 |
|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 213.384.6323 | 가디나                 | 714.351.0440 |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 909.594.6370 | 하와이(생약촌)       | 808.947.8086 |
| 에스약국           | 323.733.7788 |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 818.637.7708 | 랜초쿠카몽가               | 909.987.9500 | 시카고 알바니약국      | 847.699.1511 |
|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 323.733.7200 | 벨리                  | 818.642.8223 |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 949.251.0193 |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 847.877.6346 |
| LA 다운타운        | 213.798.3333 | 벨리 소망 약국            | 818.832.2757 |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 562.402.8859 |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 770.457.1717 |
|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 213.739.3030 | 오렌지카운티              | 213.247.2244 |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 562.402.6972 | 텍사스 (로얄백화점)    | 972.620.2900 |
| LA 6가 버질약국     | 213.384.1200 |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 714.228.9212 |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 562.402.6970 | 플로리다/NC/SC     | 770.457.1717 |
| LA 사랑방         | 213.351.9552 |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 714.636.2588 |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 626.839.2868 | 캐나다            | 604.872.1669 |
| LA내쳐영양센터       | 213.739.8874 |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 714.730.2707 | 로렌하이츠                | 626.912.5727 | 세크라멘토/아리조나     | 602.332.6492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중동의 기독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前 영국 및 UN 대사 제럴드 러셀, '뉴스테이츠맨'에 기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박해 규탄 시위를 벌이는 모습

1987년 당시 140만 명이었던 이라크의 기독교 인구는 현재 40만명으로 줄었다. 이라크에서 전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독교인들은 IS(이슬람국가)의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나 난민이 됐다.

이라크의 한 기독교 난민은 영국 정치 주간지 '뉴스테이츠맨'(NewStatesma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 몇 시간 만에 모술에서 동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을인 카라코시로 떠났으나, IS가 그곳까지도 쫓아와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낮에 남성들은 그

늘을 찾아 떠나거나 교회에서 제공해 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좁은 텐트에서 태양을 피하며 지냈다.

모술을 떠난 이들은 현재 바그다드나 쿠르디스탄 등지에서 머물고 있다. 쿠르디스탄 대통령은 난민들을 위한 새로운 마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 영국 및 UN 대사였던 제럴드 러셀은 뉴스테이츠맨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랍 세계에는 여전히 1,000만명 이상의 비무슬림이 있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기독교인이

다. 서방 국가로 이민을 떠난 이들은 선조들의 성지와 수도원 등을 모두 잃었다. 그러나 앞으로 50년 사이에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이 이곳을 떠난다고 해도, 최소한 몇 세대 동안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러셀 전 대사는 "중동은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인 역사와 유산을 지닌 곳이다. 이들의 다양성은 종교의 역사를 반영한다. 각각의 요소는 한 시대 혹은 또 다른 시대의 정치적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는 무슬림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아랍의 여러 세대들을 길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인들과 소수종교인들의 생존을 통해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우리에게 이슬람 세계가 항상 오늘날과 같이 피를 흘리는 비극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슬람이 점점 더 폭력적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의 다양성 안에서 강해져왔고, 다양한 종교들과 공존했다. 이 같은 다양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여길 때 중동은 가장 번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 테러로 70개 교회 불탄 니제르 점차 회복 중에 있어

가해자들은 보코하람과 무슬림 이웃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후, 니제르 기독교인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월드뉴스서비스가 지난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제르에서 이 달 초 발생한 테러로 최소한 10명이 죽고 70개 교회가 불에 탔다.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던 가정, 학교, 고아원 등은 대부분 불에 타서 재가 됐다.

폭력을 행사하던 이들은 보코하람의 깃발을 펼쳐 보이며 자신들의 정체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보코하람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무슬림인 이웃도 포함돼 있었다.

보코하람의 지도자 अबуб카르 세카우 역시 니제르 출신으로, 그가 지하드를 요청하는 설교는 니제르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크리스천애드미션의 에이미 코튼(Amie Cotton)은 "이 같은 폭력으로 인해 니제르의 기독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과거 니제르에서 이 같은 종류의 폭력은 없었다. 기독교인이나 무슬림들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이 같지 않고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했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서비스는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폭력적인 이슬람 단체들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니제르의 남부와 매우 가깝다.

코튼은 일부 무슬림들이 이번 공격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우리는 니제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 세계인들이 알기를 바란다. 또한 처음으로 박해를 경험한 이곳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미국 이슬람 관계 협의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CAIR)의 이브라힘 후퍼(Ibrahim Hooper)는 "공격자들이 무슬림들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다. 미국이나 전 세계의 무슬림들은 이 같

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슬람 내의 평화의 목소리가, 테러단체들의 폭력적인 소식들을 가라앉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후퍼는 "미국인들이 과거 잘못된 정권을 지지하면서 현 시점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부당한 독재정권 지지를 중단하고, 세계에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수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잔인한 독재정권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IS와 같은 단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자유와 정의를 증진시킬 때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월드뉴스서비스는 "CAIR 자체도 논쟁의 대상이다. 이들이 공식적으로는 비폭력을 선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게 무슬림단체들과 연계돼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의 아이작 식스(Isaac Six)는 "이러한 폭력은 대부분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폭력의 대적점은 자유, 종교의 자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 세계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니제르는 오픈도어선교회의 2015년 박해국가지수 순위에는 들지 않았다.

강혜진 기자



아프리카 주민들

# 마이크 허커비, '동성결혼 반대는 성경적 이유'

2천 년간 지켜 온 신념 버리라고 강요할 수 없어



미국 북음주의 정치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동성결혼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성경적 이슈"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08년 공화당 대선 주자였으며 2016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북음주의 권의 기대를 받고 있기도 한 그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이 언급했다.

허커비 전 주지사는 성경에는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성결혼 역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내가

(지금과 다른)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내가 이제 보다 발전된 생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며 성경 기록을 진리로 믿는 사람에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인 사람에게 베이컨으로 쓴 새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무슬림에게 먹여서는 안되는 것을 식탁에 올리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동성결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지켜 온 신념을 버리라고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 보수 교단인 남침례교 목회자이기도 한 허커비 전 주지사는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북음주의 교계의 지지 속에 유력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바 있다. 그는 주지사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북음주의 지도자로서 더욱 더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며 동성결혼과 낙태, 공립학교 기도 금지 등의 사안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한편, 허커비 전 주지사는 앞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확산에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이성 간 결혼의 중요성을 간과해왔고 이는 결혼의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졌다"며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상적 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그 중요성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다른 결혼까지도 받아들이기 쉽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현정 기자

코튼은 일부 무슬림들이 이번 공격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우리는 니제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 세계인들이 알기를 바란다. 또한 처음으로 박해를 경험한 이곳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미국 이슬람 관계 협의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CAIR)의 이브라힘 후퍼(Ibrahim Hooper)는 "공격자들이 무슬림들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다. 미국이나 전 세계의 무슬림들은 이 같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9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to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9:00 PM

Tel: 213-739-1022



# 미주 아버지학교 15년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비전 공유하고 가정 회복의 꿈 되새겨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운동본부 15주년 기념 비전나잇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운동본부 15주년 기념 비전나잇이 “감사로 여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개최됐다.

미주 아버지학교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비전 나잇은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캐나다 등 미주 각 지역의 지부장과 지도목사, 그리고 헌신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며 쉽고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미주 아버지학교는 2000년 포틀랜드와 시애틀에서 시작되어 15년 동안 거의 전 미주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중남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의 내용은 지역별 사역보고와 나눔의 시간, 간증과 기념공연, 토의와 합심기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민생활의 분주함과 각박함 속에서도 가정회복과 교회부흥,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정적으

로 헌신하는 지역별 사역보고와 중남미의 라틴 사역의 발전 가능성과 청도지역의 조선족 리더가 세워지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또한 도박과 알코올 중독, 마약, 이혼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존폐 위기상황에서 법원에서는 하나의 방안으로 아버지학교를 권유하기도 한다.

아버지학교를 통해 기적을 보게 하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깨닫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위한 재조명의 시간이 되었다는 간증이 있었다.

한편 작년에는 아버지학교 후원 모금을 위해 골프대회를 개최해 기금이 모아졌고, 올해에는 어느 식당의 주인이 새해 첫날 첫 매상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 수 천 달러를 후원하기도 했다.

이 후원금은 멕시코의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아르헨티나와 중남미 사역기금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김영균 기자

# 디딤돌선교회, 내실 강화와 노숙자 교회 설립

디딤돌 선교회(대표 송요셉)의 신년 출정식 예배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에 새날장로교회(류근준 목사)에서 열렸다. 8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대표 송요셉목사는 새해에 소원하는 세가지 사역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사역 비전은 첫째, 사역의 내실화 둘째, 노숙자 교회 설립 셋째, 협력강화이다.

송요셉 목사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터를 주셨다. 이제는 좀더 내실이 있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또 “모든 사역은 노숙자들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음식을 나눠 주는 것도 목

적은 전도이다. 교육과 훈련, 모든 행사도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노숙자 사역에 내실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목사는 “노숙자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숙자 교회를 시작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 미국교회 및 기타 단체들과 연합해 나갈 것이다. 신년에는 사역에 놀라운 도약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직전 이사장 류근준 목사에 공로패, 지난 2년 동안 매주 음식을 제공해온 The Orient Garden의 오상용 장로에게 감사패, 봉사자 19명에게 오바마 봉사상이 각각 수여됐다.

앤더슨 김 기자

# 나라사랑어머니회 ‘엄마밥’ 행사

따뜻한 엄마의 사랑도 함께 먹었다



나라사랑어머니회 ‘엄마밥’ 행사 참석자들이 따뜻한 엄마의 손길을 함께 나누고 있다.

나라사랑어머니회(회장 박경자)가 1월 25일 오후 5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엄마밥 행사를 개최했다.

엄마 손으로 만든 음식,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 한 그릇이 낯선 땅에서 힘겹게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외로움을 견디어 낼 따뜻한 사랑의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엄마밥’ 행사에 200여명의 청년 및 대학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쪽 눈없는 어머니’의 영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박 회장은 직접 쓴 시

‘엄마밥은 생명이요 사랑’으로 환영인사를 대신했다.

현악3중주 공연에 이어 나선 오영록 한인회장은 “2015년 차세대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으로 차세대에 관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나라사랑어머니회에 감사하며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병철 애틀랜타 교회협의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식사기도로 함께 섬겼다.

윤수영 기자

#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함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친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8: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천양예배 오후 1:45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양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승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연발, 이음, 김,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차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넛 전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말 친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성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 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 F. (323) 932-0788 / kuhnhol@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lakwpc.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영아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진심의 흐름, 비전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나 자신을 넘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해내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전학교 / 토요일(비-17)와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FC(대한교회)와 라파르트 코너-6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복음화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직접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바치는 교회(마: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양성령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아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c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영아)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성령부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령부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성령부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매주)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H/W(매주) 오후 3: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부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사교구반 오후 1:00  
 주일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양성령부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매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수/금) 금요일양성령부 오후 8:00  
 오후 12:00(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목요일예배 오전 11:00  
 유주동부(주일) 오전 11:00 구역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도회) 오전 10:30

**조인 담임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개최

이병준 목사 “더욱 기도하고 더욱 희생하자”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지난 1일 한소망교회에서 개최됐다.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준 목사)가 지난 1일 오후 5시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2015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의철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엘리트크리스천밴드 찬양, 양춘길 목사(증경회장) 대표기도, 김진수 장로(평신도부회장) 성경봉독, 뉴저지장로성가단(지휘 윤길용 권사) 찬양, 김해종 목사(UMC 전 감독) 설교, 윤석래 장로 봉헌기도, 주정배-김지은 헌금특송, 김종국 목사, 유재도 목사, 최준호 목사 특별기도, 김용주 목사(한소망교회 원로)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하례식은 이춘기 목사(총무)의 사회로 애국가-미국가 제창, 이병준 목사(회장) 신년사, 손세주 총영사(뉴욕총영사) 축사, 이종명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축사, 박찬순 목사(뉴저지 목사회장) 축사, 뉴저지목사남성합창단(지휘 김종운 목사) 축가 '이제 곧 그날 보리라', 이병준 목사 후원금 전달식, 엄순희 목사(서기) 광고, 김창길 목사(증경회장) 폐회기도, 정성만 목사(증경회장) 만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준牧사는 신년사를 통해 “교회 안팎으로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서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과,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설교를 맡은 김해종 목사는 ‘에베에셀의 하나님’(삼상7:12, 빌1:3-6)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같은 이민 1세대를 이어 훌륭한 다음 세대가 교회들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모든 과정 중에 에베에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면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의지하는 2015년도가 되자”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연합교회, 제 1선교관 개관 다양한 사역 제공

실로암 안경센터, 긍휼의 집, GMA 등 입주



연합교회 제 1선교관 개관을 위한 테이프커팅이 진행되고 있다.

아틀란티아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가 지난 1일에 제1선교관을 개관했다. 이곳에는 실로암 안경센터와 긍휼의 집, GMA(Global Mission Alliance) 선교사무실, 전도학교 사무실 등이 입주했다.

실로암 안경센터(팀장 김도극 장로)에서는 비 안과전문인들에게 12주 과정의 검안과 기초교육을 제공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안경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된다. 긍휼의 집(상설 재활용 센터)을 운영

윤수영 기자



# 애틀란타교협, 2015년도 사업총회

### 공동전도 캠페인으로 교회의 신뢰회복과 화합의 모습 보일터



교협 신임임원진이 인사하고 있다.

애틀란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한병철 목사) 2015년도 사업총회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된 2015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교협은 올해 1월 신년조찬기도회 및 하례식, 사업총회를 시작으로 2월 교협분과위원장과 임원 수련회, 목사회 임원과의 연석회의, 증경회장단 초청 간담회, 한인회 방문-협력논의 및 회비 납부, 3월 기독교 언론사 방문, 4월 부활절연합예배, 교협 회장에 진선 불링대회, 5월 제 14회유소년축구대회 후원, 1차 전도 캠페인, 애틀란타 노인회 방문 후원, 6월 2차 전도 캠페인, 교도소 선교, 이단대책 세미나, 7월 청소년 집회 지원, 애틀란타 기도의 밤, 8월 3차 전도 캠페인, 복음화 대회준비기도회, 9월 4차 전도 캠페인, 원로목사 초청 위로회, 10월 복음화 대회, 교협 회원 친목 등산대회, 11월 성경대학, 패밀리센터 등 단체 후원, 정기총회, 12월 메시아연주회 후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계획은 공동전도 캠페인으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노력을 할 것이며 미자립 개척 교회의 단기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 예정이다. 또 기관 및 단체,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에 중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안건으로 최병호 목사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그와 관련하여 집회 및 행사가 있었으면 한다. 또 차세대를 위한 청소년집회를 후원하자'고 말했다.

교협 정관 개정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올 가을 정기총회에서 진

행하기로 했다. 임원 및 각 분과위원장 선임보고에서는 회장 한병철 목사와 부회장 정운영 목사, 평신도부회장 천경태 장로와 함께할 임원으로 총무 류근준 목사, 부총무 김영준 목사, 서기 백성복 목사, 부서기 진세관 목사, 회계 이순희 장로가 보고됐다.

이사회는 이사장으로 류도영 목사, 서기 임연수 목사, 이사로는 김정호 목사, 김영환 목사, 서삼정 목사, 정인수 목사, 신용철 목사, 장석민 목사, 최선준 목사, 최병호 목사, 황영호 목사가 감사로는 박정근 목사, 김순영 장로가 수고하게 된다.

분과위원장으로는 예배 유영의 목사, 기도 김성범 목사, 선교전도 남궁 전 목사, 사회복지 황일하 목사, 성경대학 김상민 목사, 이단대책 송상철 목사, 교도소 김우식 장로, 친교 김진철 목사, 신학 최봉수 목사, 재정 오대기 장로, 청소년 김성환 목사, 음악 안태환 집사, 윤리 김성구 목사, 장애선교 양영선 장로, 노인 복지 조현성 목사, 목회 송희섭 목사, 교육 심수영 목사, 홍보 권석균 목사, 여성 복지 지수애 사모, 인권난민 정경성 목사, 체육선교 조윤석 집사, 법률자문 진명선 변호사, 평신도 이원석 장로가 각각 임명됐다.

사업총회에서는 이 밖에 임연수 목사, 김성범 목사, 오대기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업총회에 참석한 애틀란타 한인회 오영록 회장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 넘치는 한인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윤수영 기자

#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성료

### 교협의 모든 헌금,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



신년하례회에서 올 회기 뉴저지교협의 모든 헌금을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병준 목사

뉴저지교협 회장 이병준 목사가 지난 2일 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열린 신년감사예배에서 올해 뉴저지교협의 모든 헌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병준 목사는 행사 말미에 잠시 얻은 발언 시간을 통해 "오늘 신년하례식과 오는 부활절연합예배 등에서 헌금되는 금액은 모두 교협을 위해 쓰지 않고 베푸는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나누는 교협, 도움주는 교협이 되겠다"고 과격 선언을 했다.

실제로 이날 뉴저지교협은 4개의 이웃사랑단체를 선정해 각각 1천불씩 총 4천 불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뉴저지교협의 1년 예산 규모를 볼 때 신년부터 꽤 큰 규모의 지출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뉴저지교협 자체 운영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모든 헌금을 외부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이병준 목사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병준 목사는 또 "뉴저지 지역 교회들이 더욱 힘써 모여야 한다. 오늘 신년 하례식은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호산나복음화대회나 부활절연합예배는 서로 모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뉴저지 교회들의 연합된 힘을 보여주자"고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 O.C. / 엘바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연합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찬양 오후 7:30  
영어연합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받은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회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원의 삶으로 살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 장년 1부 9:00am  
장년 2부 11:00am  
Youth 예배 12:15pm  
Children 11:00am

EM 1:30p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15 Goddard, Irvine CA 92618  
T.(949)341-0022 / (949)398-7303  
www.newlifek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전 12:45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나누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삼십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새벽예배: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과 인내하심이 무궁무진하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등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שראל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령예배 오후 2:30  
주일성경학교 오후 7:30  
최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용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시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주혁로 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SuperMirapharm.com

#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에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주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물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재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니는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감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숙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라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고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다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눔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검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개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관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받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감비아 한인 선교사들 위한 '영적 무장 세미나' 개최

복음의 불모지 현장, 선교사들의 영적·육적·심적 회복 시간 갖게 해



세미나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부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지난 1월 22-23일 양일간 감비아 주재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신년 영적 무장 세미나가 열렸다.

감비아 주재 한인선교사회(회장 서성복 선교사, 어린이전도협회) 주관으로 감비아의 세레쿤다(Serekunda)시에 위치한 카이라바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선교사 가정과 개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주강사로는 김덕겸 목사(사랑장로교회 담임, 한영신대 교수, 세계외국인선교신학교 설립자)가 초청됐다. 김 목사는 자신의 저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주제로 4번에 걸쳐 강의를 했다.

김덕겸 목사는 1990년부터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로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여 재파송하고 있으며, 2011년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선교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지인 선교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년간 선교학을 공부했고 30여개국 이상을 순회하면서 현지인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김 목사는, "한국 교회가 2만여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한 것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면서 "이제 파송한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잘 돌봐서 재파송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교파나 교단을 초월하여 파송된 선교

사들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고 사역지를 잘 돌봐주는 것이, 그들이 탈진하거나 지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비아 방문 중 현지 방송에 출연하여 전국에 말씀을 전하고 시장·도지사 및 감비아 최대 교회 담임 목사 등 지도자들을 두루 만난 김 목사는, "선교사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감비아 최초 선교사였던 이재환 선교사(온누리교회)가 철국한 후 약 13년 만에 처음 열린 이번 세미나는, 복음의 불모지인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영적·육적·심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환 선교사의 후임으로 국제학교와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한병희 선교사(합동 GMS)는 "감비아는 작고 가난한 나라이다. 본국에서 거리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단기선교팀조차 잘 찾지 않는 지역이다. 이번 김덕겸 목사의 방문과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아주 큰 힘과 도전이 되었다"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석수 기자

# YWAM, 선교선 사고 희생자 '아론 브렘너' 추모기금 모금

추모영상도 공개, 추모기금 통해 태평양 오지섬 사역 지속



아론 브렘너의 가족과 친척, 친구, 동역자들이 지난달 6일 아론을 추모하며 선교선을 향해 화환을 던지고 기도했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코나 해안에서 선교선 전복 사고로 사망한 국제예수전도단(YWAM) 소속 아론 브렘너(Aaron Bremner)의 생전 사역활동 모습과 간증을 담은 추모영상이 올라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현재 YWAM은 태평양의 소외된 오지섬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아론 브렘너 추모기금(Aaron Bremner Memorial Fund)'을 모금 중이다.

아론 브렘너를 포함한 총 5명의 선원이 탄 선교선 '하와이 알로하(Hawaii Aloha)'는 1월 2일 밤 코나 섬을 출발했으나 폭풍경보 발령 이후 피항하다 대형 파도에 뒤집히고 말았다. 당시 같이 승선하고 있었던 동료 4명은 비상보트로 탈출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나, 브렘너는 통로가 차단돼 구출되지 못하고 결국 실종됐다.

로하를 교체하기 위한 '아론 브렘너 추모기금'으로 이어지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가족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더 겸손하게 할 것"이라며 "코나지부가 수행한 모든 일과 여러분의 추모기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YWAM 선교선은 태평양에서도 가장 고립되고 소외된 700여 개 섬을 위해서 전심으로 사역해 왔다.

공함이 없는 이들 섬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선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YWAM은 이곳의 복음화율이 낮은 종족을 찾아가 의료, 봉사, 교육 사역을 통해 희망을 주어 왔다. 이번에 YWAM 선교선으로는 첫 사고를 당한 22.8m 규모의 하와이 알로하도 남태평양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에서 의료, 정수, 성경전달 사역을 하기 위해 출항할 체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희 기자



지난달 3일 선박 전복으로 실종된 아론 브렘너 ©YWAM

#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팔리고 있다?

손과마음선교회, 2월 5일 '북한 장마당' 주제 세미나



북한 평안남도의 한 장마당 모습

손과마음선교회(이사장 최덕순 목사)는 오는 2월 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홀에서 '북한 장마당의 영향력과 선교 전략'을 주제로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들이 북한의 장마당을 평가하고, 그 영향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선교회 측은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새로운 통

일의 비전이 열리고 있다"며 "그 가능성의 현상이 바로 북한 장마당"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은찬 교수(통일교육원)가 '북한 시장(장마당)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전망', 안찬일 소장(세계북한연구센터)이 '북한 장마당의 정치적 영향: 탈북자들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심주일 목사(부천장조교회)가 '북한 장마당을 통한 선교의 전략적 기회'를 각각 발제한다. 논찬에는 강

동완 교수(동아대)가 나선다.

첫 발표자인 정은찬 박사는 북한 장마당의 경제적 측면 분석을 통해 "장마당이 북한 내부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탈북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장마당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할 안 소장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나타난 사회적 변화의 조짐으로 '사유화 현상'에 주목했다. 안 소장은 "북한 장마당이 사유화 확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모퉁이돌선교회' 일원으로 북한 선교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던 심주일 목사는 '장마당'의 선교적 가치에 대해 발표한다. 심 목사는 "장마당에서는 심지어 성경책도 팔리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장마당을 통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할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http://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S의 위협 확대와 이슬람을 향한 선교

이 글은 현재 백석대학교에서 신교학을 가르치고 오엠(OM)선교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이정순 교수(사진)의 특별기고문이다. -편집자 주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민항기로 자살폭탄테러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그전까지 이슬람에 대하여 무관심한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이슬람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후 2011년 5월 1일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고 같은 해 12월 이라크에 주둔 미군 전투병력이 철수하면서, 이슬람과 관련된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10일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제2 도시 모술을 무혈 점령하면서, 우리의 기대가 오판임을 알게 되었다.

IS는 2014년 8월과 9월에 미국인 기자 2명에 이어 영국인 인질 2명과 프랑스인 산악 안내원, 최근에는 일본인 인질 2명을 살해하고, 위협과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IS는 알카에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IS는 더 이상 중동과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우리의 이웃인 일본인 살해와 터키에서 시리아로 넘어간 한국인 10대 김 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IS의 끔찍한 테러 때문에 무슬림을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IS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위협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역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1. 시리아 내 기독교 유적지

필자는 2009년 여름방학 동안 시리아, 이란, 레바논을 지역 연구차 방문하였다. 신명기 26장 5절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아람은 시리아를 가리킨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는(성경의 다메섹)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고대 기독교 유적지가 산재해 있어, 기독교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나라이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우마야드 모스크는 시리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모스크로, 우마야드 왕조 때 세워진 것이다. 이것이 비잔틴 제국 때에

'세례 요한 머리 무덤 교회'로 전환되었고, 아랍 이슬람 시대에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던 중에 하늘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던 지점이다. 현지명은 코잡이라고 하며, 사울이 당시에 말 위에서 떨어졌다 해서 '바울 낙마 교회' 또는 '바울 회심 교회'가 있다. 다마스쿠스의 동편은 기독교 구역이어서 현재 교회가 밀집해 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강한 빛으로 시력을 잃은 사울이 그곳 교회 지도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 다시 앞을 보게 되고, 그곳에는 '아나니아 기념 교회'가 있다. 다마스쿠스에는 또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곳이라고 알려진 장소도 있다. 다마스쿠스의 북쪽 마물라(Maalula) 지역은 예수님이 생존했을 당시 사용한 고대 아랍어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사용하는 고장이다.

### 2. 이라크, 시리아에서 IS 발생 요인

알카에다와 다른 이슬람 단체들조차도 '지나친 극단주의'라며 거부한 IS는, 정치와 삶의 '종교적 부활'을 주장한다. 2011년까지도 무력한 듯 보였던 이슬람 무장세력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다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된 원인은, 이라크의 말리키 정부의 소수파인 수니파를 배제한 일방적 독단과 극단적 부패 및 시리아 내전을 꼽는다.

IS는 이라크 서북부와 시리아 동북부 등, 영국에 맞먹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시리아의 유전을 장악해 원유를 터키 등에 밀수출하고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이슬람식 교육을 강요하는 등 국가 행세를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인 등 인질을 붙잡아 받아내는 몸값과 석유 판매로 연간 3억 달러(약 3100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반군 중에서 최강의 세력이 되었다.

IS는 2006년 알카에다 이라크지부(AQI)로 수니파 거점 지역인 팔루자에서 요르단 출신의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당시 반미 무장투쟁과 이라크 내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내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라크의 인구 중에는 시아파가 다수(60%)지만, 건국 이래 정권은 소수파인 수니파(20%)가 독점해 왔다. 미국의 폭격으로 2006년 12월 30일 후세인 사망 후에 선거를 통하여 시아파에게 정권이 넘어갔다. 이슬람 국가에서 시아파가 정권을 잡은 것은 1171년



이정순 교수  
오엠(OM)선교회 자문위원

이후 830년 만의 일이다. 이라크 수니파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침공으로 몇 백년 독재해 왔던 정권과 주권을 빼앗기어 반미 저항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었다.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 요르단이 이라크 내전에 동참하면서 내전은 더욱 커지는 양상을 띠게 됐다.

IS는 2014년 6월 10일 이라크의 모술 점령 이전에도 야채 행사, 휴대전화 가게와 건설회사 등 모술 주민 모두에게 월 800만 달러(80억 원)의 세금을 걷었다. 백만(정규군 35만, 경찰 65만) 병력을 갖추고 2011년 이후 416억 달러(42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한 이라크 정부가, 6월 10일 1,300명에 불과한 병력의 IS에 비참하게 패배하여 모술을 빼앗긴 이유는 이라크 군의 부패 때문이다. 이러한 부패는 2005년 미국이 이라크군의 식량 등 군수품을 외주화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병력 200명을 가진 장교가 병력을 2-3배로 부풀려 식비를 신청해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부패는 군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만연해 있다. 말리키 정부는 측근들에게만 이권과 주요 보직을 주며 이권을 쥔채왔다.

IS 발생 요인으로, 시리아 내전은 두 가지 면에서 IS의 급성장을 도왔다. 첫째, 시리아 반군들은 아사드 정권을 붕괴하고자 미국, 사우디와 카타르 등 이슬람 수니파 국가에게서 엄청난 무기와 군자금 지원을 받았다. 아사드 정권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쉬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에 속하며 이란의 동맹국이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수니파가 다수파(60%)이므로 시아파를 이단시하는 사우디 등이 시리아 반군 세력을 적극 지원하여 아사드 정권 제거를 도모하였다. IS는 서방측이 시리아 반군에게 제공한 첨단 무기를 위협과 돈으로 매수, 확보하여 최강의 반군 세력이 되었다. 둘째, 이슬람교 내부의 종파 갈등이다. 시리아의 아사드와 이라크의 말리키 정권은 모두 시아파 세력이며 국내 수니파를 탄압하여 왔다. 따라서 수니파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IS의 문제

는 이슬람을 지배와 탄압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악용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신정일치이다.

### 3. 무슬림과 외국 용병들의 IS 참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제시카 스텐(Jessica Stern) 교수는 1998년 출간된 『최후까지 싸우는 테러리스트(The Ultimate Terrorists)』라는 책에서 '테러의 핵심에는 극도의 모멸감과 박탈감이 놓여 있다.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테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IS는 시리아·이라크의 도시들을 습격하고 무고한 주민을 집단살해하는 극단적 테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젊은이들까지 참여하도록 노리고 있다. 2014년 6월 10일 모술 함락 당시 6천 명이던 IS의 병력 규모가 9월에는 최대 3만1천5백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1만 5천여 명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이고, 한국인 출신도 있다고 전했다.

젊은이들과 서구인들에 대한 IS의 유인 방법은 다양하다. IS는 자체 제작·발간하는 PDF 파일 형태의 30여 쪽의 디지털 영문 잡지에서 자신들의 설립 목적, 전쟁 이유, 지난 전투 성과 등을, 화려하게 편집된 사진과 이슬람 경전 '꾸란'을 인용한 글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IS의 홍보 방식은 다른 테러단체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정교하다. IS는 사람들이 IS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터넷 등 SNS를 활용해,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해 벌이는 지하드에 동참해달라고 전 세계에서 용병을 모집한다.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로 좌절하는 서방 젊은이들을 이슬람 지하드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IS가 대원들을 모집할 때, 젊은이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물질적 보상을 내세우며 유인하고 있다. 이라크·시리아 북부에서 원유를 팔아 연간 3억 달러(약 3,100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 인질을 붙잡아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받아내는 몸값도 주요 수입원이다. 이 자금으로 IS 조직원과 가족에게 주택·사망보상금 등 각종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자료에 의하면, IS는 가족복지혜택으로 전투원 결혼 시 1,200달러, 가구 딸린 집, 매월 부인 1인당 100달러, 자녀 1인당 50달러를 제공하며, 사망 시 유족에 보상금 수천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전파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컴

퓨터에 빠져 있는 10-20대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김모 군(18)은, SNS를 통해 IS를 접하고 지난달 터키 내 시리아 접경에서 IS에 가담하기 위하여 시리아로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4. IS에 대한 한국교회를 향한 제안

이슬람권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열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무슬림들을 향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이슬람의 교리와 문화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극단주의 무슬림인 알카에다와 IS 등은 전 세계 16억 무슬림 중에 극히 일부분이다. 그들의 소행이 매우 악한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라는 공식을 적용시켜 무슬림을 무조건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엢 6:12)"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난 3년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국외로 빠져나간 난민은 300만 명이 넘는다. 그들은 현재 스웨덴, 이탈리아와 독일 등으로 흩어져 있다. 인접국가인 레바논에 117만, 터키에 84만, 요르단에 60만 명, 이집트에 13만 명이 있다. 이 중에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한국인 사역자들이 이미 많이 나가 있는 곳들이 많다. 지금이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다. 그 사례로, 2013년 1월 22일 한국 극동방송은 시리아 난민 돕기 생방송을 통해 17억 원 상당을 모금해 2013년 3월 22일 주겨용 컨테이너 400채와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그 후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촌에서 한국인 사역자들이 그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IS 공격으로 상처받은 난민들과 이슬람의 테러와 잔혹성에 대하여 회의를 갖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진심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이슬람의 정확한 교리를 가르치어, 막연한 두려움이나 고통감을 갖지 않고 이슬람의 실제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바라보도록 힘써야 한다.

현재 하나님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 기회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들에 다가가야 한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http://www.fbmcopiers.com)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광야를 걷다

김범석 | 두란노 | 323쪽

첫 저서 '역전'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했던 저자가, 다시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한다. 저자는 광야를 걷느라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광야'는 설령 걷다가 마라에 쓴 물, 이리와 승냥이를 만난다 해도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시온의 대로'가 되며,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 부르짖는 이들을 기꺼이 만나 주시는 은혜의 '지성소'라고 말한다.



#### 잠언 100일 큐티

오대희 | 생명의말씀사 | 232쪽

잠언 중 엄선된 구절들로 100일간 큐티를 하면서,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는 묵상집이다. 매일 본문을 읽고 생각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삶을 더 깊이 점검해 볼 수 있고, 이를 함께 나누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본문에 대한 설명, 묵상과 적용, 기도 등으로 구성된 큐티 습관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도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



#### 호빗과 말씀 묵상

에드 스트라우스 | CLC | 3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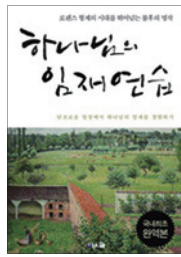
얼마 전 영화로도 개봉한 J. R. R. 톨킨의 판타지 동화 <호빗>을 통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톨킨이 <호빗>을 통해 독자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주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했으나, 많은 이들이 단순히 이를 '판타지 고전'으로 읽고 끝내는 것을 우려한다. 이에 소설을 60장으로 나누어 전체 그림을 그려주면서 성경적 교훈을 찾아낸다.



####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 브니엘 | 208쪽

잘 알려진 고전 중의 고전이다. 그러나 이 책을 로렌스 형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당시 지도자였던 보포르 대수도원장이, 형제의 원고를 모아 편집하고 상당 부분을 직접 정리해 기록한 것이다. 로렌스 형제의 격려 편지들과 영성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언들, 그리고 로렌스 형제와 함께 나는 대화들과 로렌스 형제를 기리는 글 등으로 구성됐다.



## REVIEW

### 닉 부이치치가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꿈과 희망

#### 불평하는 대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 봐

'닉 아저씨'는 1982년생에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팔다리 없이 전 세계를 누비며 행복을 전하고 있는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Nick Vujicic)의 스토리는, 그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더불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했다.

<닉 아저씨처럼 꿈을 가져>와 <닉 아저씨처럼 할 수 있어>는 '닉 부이치치의 꿈쟁이 시리즈'이다. 그의 기적같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림책으로 편집한 책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자존감을 높이



닉 아저씨처럼 꿈을 가져/닉 아저씨처럼 할 수 있어 두란노키즈 | 각권 96쪽

고 그들에게 꿈을 심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닉 부이치치의 '팔다리 없는' 모습

마저 아름다워 보이는 일러스트도 인상적이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에피소드

들을 통해 <... 꿈을 가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사랑을 표현하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용기를 주는 천사가 되기, 울지 말고 지금부터 웃어 보기 등을, <... 할 수 있어>에서는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씩씩하게 두려움을 이겨내기, 행동으로 옮기고 끈질기게 노력하기,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기 등을 각각 전해주고 있다.

닉 아저씨는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계속 투덜대고 불평하지 마. 가지지 못한 것에 안달하고 짜증 내면 아무 것도 바뀌

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 봐. 네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꼭 기억해."

부모들에게는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의 격려의 말과 사랑을 먹으면서 자란다"며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보배로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견디고 이겨 내도록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하여 당부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성화 특별 기획전

크리스천이라면 가정에서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성화를 특별 할인판매 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선물용으로, 교회에 하나쯤은 꼭 비치하면 좋습니다.



### 성화특별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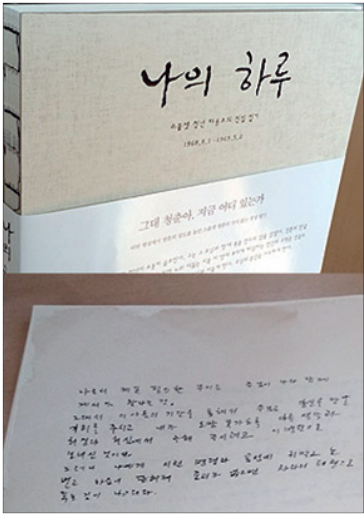
- 36×18 - \$ 200
- 19×25 - \$ 150
- 27×19 - \$ 200
- 8×12 - \$ 70
- 6×8 - \$ 40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문의하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T) 213-434-1170



## 스물 셋 청년 하용조, 병상에서 쓴 육필 일기

온통 '예수' 로 가득한 그 시절 기록들



나의 하루  
하용조 | 두란노 | 232쪽

"1966년 8월 4일 경기도 입석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 구조로 영접하고 자신의 십자가와 피 묻은 손을 실제로 경험한 사건 때문에 내 인생

은 달라졌다. 그 뒤 예수님을 정신 없이 좋아했다.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울면서 기도했고 밤을 새워 성경을 읽었다."

故 하용조 목사의 '젊은 날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도서가 출간됐다. 1968년 8월 1일부터 1969년 5월 2일까지, 스물 셋 나이에 폐병으로 입원해 한 자 한 자 힘겹게 써내려간 일기를 엮었다. 특히 친필 그대로를 담았으며, 양장이지만 전통 제본 방식을 사용해 독특한 예스러움을 만들어냈다.

하 목사는 병상에서도 아픈 이들과 더불어 성경공부를 했고, '하 목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도하고 전도했으며,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와 그 형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그에겐 온통 '예수' 뿐이라, '나의 일기를 훑쳐 본다'는 묘

한 감정보다 '나의 일기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은' 반성에 휩싸인다.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인간은 누가 고칠 것인가? 아, 불수록 괴롭고 알수록 연민스럽다."

출판사 측은 '일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삶과 죽음, 믿음과 실천, 사랑과 용서, 전도와 선교, 공동체와 자기 정체성 등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총체적인 과정이 집약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의 '오래 벗'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는 일기를 통해 '다시 만난 청년 하용조'에 대해 "얕으면 민족을 걱정하고, 깊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찬송을 하고, 혼자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삶의 대부분을 썼던 하 목사님,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 목사님의 삶 가운데 평생 식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 '기독교 국가'의 '無종교인' 들 그들은 왜?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베가북스 | 356쪽

최근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설문조사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한국인의 종교인구 분포는 '불교-기독교(개신교)-천주교-기타종교' 순이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합쳐도 50%에 불과하다. '비종교인(종교 없음)'이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어떤 면에서 '무교'가 한국의 최대 종교인 셈이다.

화이트 목사가 최근 펴낸 <종교 없음(The Rise of the Nones)>은, 미국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종교 그룹인 '무종교인들(Nones)'의 증가 현상에 대해, 그 특성과 이유를 분석하고 그들을 '종교 있음'의 상태로 되돌릴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인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James Emery White) 목사는 고든콘웰 신학교 제4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교회 성장, 다시 생각해봅시다>, <위기의 시대에 놓인 교회> 등을 썼다. 그가 총장직을 내려놓고 창립한 샬럿 메클런버그 커뮤니티교회는 성도 중 70%를 '불신자 전도'로 채운 곳으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 중 하나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무교'의 비율은 1984년 56%, 1997년 53% 등 꾸준히 50%대를 유지해 왔다. 생활기록부 종교란에 한 칸을 차지할 만큼 우리에겐 '무교'가 익숙하지만,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본지 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40%가 교회에 가지 않는데도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 답하는 '포스트-크리스천(또는 명목상 기독교인)'이었고, 20% 정도가 '특정한 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저자 화이트 목사는 이들 '무종교인'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특정 종교를 거절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또 특정 정치색을 대변하고 돈과 권력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며

신앙을 강요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면서, '종교 없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분석한다.

화이트 목사는 '무종교인'들에게 참되고 유일한 길을 알려주기에 앞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문제는 전략이나 신학, 리더십과 새로운 세대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교회에서 불신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의 정문을 멋지게 매력 있게 활짝 열어 그들을 초청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깨어나서 눈앞에 직면한 전투에 참여해야 할 때이고, 그 전투는 너무나 명백하다"며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기 위해, 복음 그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차단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종교 없음'에 체크하는 사람들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리고 예수의 지상명령 핵심은 '종교 없음'을 외치는 그들을 '종교 있음'을 외치는 사람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이 거센 흐름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불신자들을 위해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결론 부분에서 각자의 교회론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기로에 놓인 한국 기독교의 돌고구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 우리 향한 하나님 사랑은 '로맨틱' 하지 않다

"이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무시무시한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호 11:8)."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하고 묻는다. 되는 일이 없고, 나아지지도 않고,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각자의 삶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고 줄 수 있는 차원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대 대표적 강해설교자인 박영선 목사(남포교회)는 그 간극에 대해 "차선이나 부분으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그분이 만드시는 영광의 승리"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 목사는 이번 설교집에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의지를 차분하고도 잔잔하게 증언하고 있다.

"호세아서 전체는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이 사랑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무시무시한가를 가르치는 데에 호세아 선지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적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밖에서

어떤 힘을 가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놓는 기계적 결정권을 갖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능함, 연약함, 그리고 비전함이나 무지함 같은 데 찾아들어와 동참하십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13·17쪽)."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하시고, 가끔은 찢절매시며,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죄) 우리에게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강을 건너오시고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며,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한계, 고통과 비명에 '동참'하십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듯,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심판이 절대로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완성으로 끝내게 하시려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허락하시



박영선의 호세아 설교  
박영선 | 남포교회출판부 | 278쪽

며 과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허용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현재 직면하는 현실과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을 지켜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영선의 호세아 설교, 이 책에는 호세아서 14장 전체를 16차례 설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 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원 FDA 임상 2차 실험 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균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라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부대찌개,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스타치오,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떡볶이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테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213-598-5552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ran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Tel. 323.737.2922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3달분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HYUNDAI

###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2015 Genesis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2014 Genesis 3.8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2014 Equus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30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200 down = \$250 lease cash, \$500 mileage, \$400 college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2,0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3899 without \$1,200 lease cash.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88,549 Drive = \$100 lease cash, \$100 Value or Competitive lease option, \$1000 mileage, \$400 college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0,5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10399 without \$1000 lease cash.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北 붕괴는 이미 시작, 대비해야 할 때

### 권영해 전 국방장관, 미래포럼서 ‘한미공조와 국가안보 특강’



이날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한국미래포럼(상임회장 박경진 장로)이 지난 3일 ‘한미공조와 국가안보 특강’을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사 권영해 장로(전 국방장관, 전 국정원장)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G20이라 해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정말로 섬세한 외교”가 요구된다고 했다.

권 장로는 “북한이 언제 붕괴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20년 전부터 평양을 제외하고는 식량 배급이 안 되고 있다”며 “이제는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국미래포럼은 이날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일부 세력의 주장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며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요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평화통일의 민족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수정·보완하고 적화통일의 음모준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1부 예배에서는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담임)가 ‘우리는 하나’(고전 12:12-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 다르다”며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난다. 교회는 보수 성향이 있는가 하면 진보 성향도 있는데, 저는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조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사를 전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해방된 후 정부가 수립되고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며 “이후 6.25전쟁이 났지만, 결국 휴전을 시키고 대한민국을 복원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비고비마다 금방 나라가 넘어갈 것 같고 경제가 무너질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온 것은, 한국 기독교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독교가 없었다면, 또 주일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온전했겠느냐. 통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다.

하석수 기자

# 예장 고려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총회 개최

### “이 시대의 제단 회복 위해 기도와 헌신의 돌을 쌓자”



행사에 참석한 교단 관계자들과 여전도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총회장 천환 목사) 전국여전도회연합회(회장 장명화 권사)가 1월 26~28일 새중앙교회 대부도 수양관에서 ‘제25회 수련회’와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왕상 18:43)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600여명의 참석자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와 기도회, 특강, 운동과 단합대회, 찬양제 등 다양한 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 한 해 더욱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 것을 다짐했다.

강사로는 개회예배에 천환 목사(예일교회 담임, 예장 고려 총회장), 저녁예배에 신승태 목사(효성교회 공로, 예장 고려 전 선교부장, 전 서울남노회장), 새벽기도회에 김원구 목사(산성교회 담임, 예장 고려 전 교육부장, 전 서울북노회장), 특강에 권정희 목사(송덕교회 담임, 예장 순장 총회장) 등이 나섰다.

천환 목사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랑’(눅 3:15-20)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세례 요한이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그가 부모에게 경건의 능력을 배웠고 둘째로 복음의 능력을 지녔으며 셋째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또한 칼빈의 후예요 고려인으로서, 자신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는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신승태 목사는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느 8:1-12), ‘지금이 어찌 ... 받을 때냐’(왕하 5:20-27),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왕상 18:41-46)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특히 폐회예배에서는 “엘리아 시대에 재앙이 왔던 것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결국 엘리야가 무

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다”고 했다.

신 목사는 “이 시대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요 개혁주의 신앙의 회복이다. 또한 이 제단에 돌을 쌓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며 “우리 모두가 교단과 신학교를 위해 일곱 번까지 다시 가는 마음으로 기도의 돌과 헌신의 돌을 쌓자”고 역설했다.

김원구 목사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기리니 -구국의 여인 에스더’(에 4:10-17),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기도의 여인 한나’(삼상 1:9-18)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여전도회원들도 에스더와 한나처럼 믿음의 기도로, 개인과 가정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살리길 바란다”고 했다.

‘개혁교회의 바른 섬김의 삶’(마 20:28)을 주제로 특강한 권정희 목사는 “만약 교회가 지금까지의 외적 성취에 자족하고 그것을 탐닉하면서 참다운 섬김의 자세로 전하지 않는다면 곧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이라며 “교회들이 예언자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교인들이 사회적 관심과 돌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섬김의 교육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수련회 둘째날 오후 진행된 총회에서는 회장에 장명화 권사를 연임시키는 등 임원을 개선하고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회장 장명화 권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우리 교단이 아픔과 연단 속에서 성숙해가고 하나되는 일에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섬기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류재광 기자

# 주승중 목사, 세상 풍요 집착이 종말신앙 잃게 해

### ‘제10회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 서 주기철 목사의 순교신앙 강조

상계교회(담임 서길원 목사)의 ‘비전교회살리기운동본부’와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윤재 목사)이 지난 3일 서울 노원구 상계교회에서 ‘순교의 영성과 교회 부흥’을 주제로 제10회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자립·개척교회(비전교회) 목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세미나는 주승중(주안장로교회)·주성민(세계로금단교회)·김형민(대학연합교회)·서길원(상계교회)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이윤재 목사의 개회기도 및 환영사, 사례보고, 부흥성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앞장서 준비한 서길원 목사는 “교회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

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계교회는 9년 전부터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매년 2월 초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부흥 노하우를 나누고, 참석한 교회를 선정해 전도용품과 전도지원비를 후원하는 등 훈련과 섬김을 통해 교회 자립을 도모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부흥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윤재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교회의 본질은 규모가 크고 작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뜻대로 행하느냐에 달렸다”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목회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첫 강사로 나선 주승중 목사는 ‘순교의 영성으로 설교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故 주기철 목사의 ‘순교

신앙’을 증언했다.

주 목사는 “주기철 목사가 목회했던 평양 산정현교회는 당시 신사참배 반대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약 5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는 등 신사참배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하셨다”며 “그에게는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이 있었다. 신앙의 순결을 강조하면서 불의의 권력에 대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하며 그 순교신앙을 본받아 이어가자고 했다.

주 목사는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강단의 설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더불어 물질의 풍요로 세상에 집착한 나머지 종말신앙을 잃어버린 탓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 순교신앙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외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런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 **213.249.1161** | **기독일보 LA** | **949.864.9162**  
 지부장: 김경호 목사 | **shelby.moon65@gmail.com** | **cmm6791027@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http://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mailto:info@cmmlogos.org)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